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사람의 생애에서 어느 시기에 죽는 것이 더 나쁜 것인가? 이에 관한 비례 설명에 따르면 나쁜 정도는 죽음이 박탈하는 미래의 좋음 양에 비례한다. 급성 질환으로 임종 직전의 환자가 특정 약물을 복용하면 괴생명체로 변해 수명이 1년 연장된다고 해보자. 이 환자는 약물을 마시지 않거나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비례 설명을 수용한다면 환자는 약물을 마시는 선택을 해야 한다. 만약 약물을 마시지 않았다면 그 환자는 1년간 누릴 수 있었던 좋음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약물을 마시는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죽음이 앓아가는 좋은 것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죽음의 나쁨에 관한 또 다른 이론으로 심리적 연결 설명이 있다. 이에 따르면 죽음의 나쁜 정도는 죽음이 박탈하는 좋은 것을 죽는 시점에서 판단되는 미래 자아와의 심리적 연결에 비추어 다시 계산한 것의 양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죽음을 앞둔 30세의 수학자 철수는 죽기 전 수학계의 최고 난제를 해결하여 필즈상을 받길 원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필즈상은 40세 이상의 살아있는 수학자에게만 수여되므로 냉동인간 기술을 이용하여 철수를 10년간 냉동시켜야 한다. 냉동상태에서 풀려난 깨어난 사람은 지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단 수 시간만 생존할 수 있다. 철수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40세의 죽음을 30세의 죽음보다 더 선호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냉동상태에서 깨어난 40세 철수와 30세 철수는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단정 불가론이 제시되기도 한다. 철수의 소망은 철수 자신이 필즈상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10년 뒤 냉동상태에서 깨어난 사람이 30세 당시의 철수와 동일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개인동일성에 관한 문제는 신체적인 요소가 아닌 비신체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하지만 개인동일성에 대한 신체적 기준을 가정하지 않는 한, 냉동상태에서 깨어난 그 사람이 30세 철수와 동일한 신체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을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철수는 결코 이루지 못할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셈이다.

과거 노력 설명은 비례 설명이나 심리적 연결 설명과 같은 기존의 이론보다 더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죽음의 나쁜 정도는 죽는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위해 과거에 기울인 노력을 죽음이 무력화시키는 정도에 비례한다. 이 이론은 철수가 자신을 냉동인간으로 만드는 선택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철수가 30세에 죽는다면 그동안 수학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해왔던 자신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 노력 설명에 따르면 갓난아기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투자한 노력이 미미하므로 일반적으로 젊은이의 죽음이 아기의 죽음보다 더 나쁘다. 그렇다면 젊은이의 죽음은 노인의 죽음보다 나쁜 것인가? 노인도 젊은이와 동등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인생을 위해 계획을 세운 정도와 투자된 노력이 상당할 것이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과거에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많을수록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시간이나 기회가 적을수록 과거의 노력이나 계획이 훼손되는 정도가 줄어든다는 과거노력훼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더하기 설명은 죽음의 나쁜 정도를 과거의 노력이 무산되는 정도에 죽음이 박탈하는 미래의 좋음을 더한 값에 비례한다고 규정한다. 비례 설명과 과거 노력 설명의 장점을 종합한 이 이론은 젊은이의 죽음이 가장 나쁘고, 갓난아기의 죽음이 그보다 덜 나쁘며,

노인의 죽음이 가장 덜 나쁘다는 것을 함의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아래의 <표>를 보자.

구분	A	B
갓난아기의 죽음	$F_1$	$D_1$
젊은이의 죽음	$F_2$	$D_2$
노인의 죽음	$F_3$	$D_3$

<표>

<표>에서 A는 과거 노력의 무산 정도를 호환할 수 있는 가치로 환산한 F값을, B는 죽음으로 인해 박탈되는 미래의 좋음을 호환할 수 있는 가치로 환산한 D값이다. 한편 더하기 설명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ext{전제1: } D_2 > D_1 > D_3$$

$$\text{전제2: } F_2 > F_1 > F_3$$

$$\text{결론: } F_2 + D_2 > F_1 + D_1 > F_3 + D_3$$

㉡첫 번째 문제는 젊은이와 아기의 수명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면 젊은이의 죽음보다 아기의 죽음이 박탈하는 미래의 좋음 양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수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즉, B에 대해 “당사자의 심리적 연결에 비추어 다시 계산한 것의 가치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수정된 더하기 설명도 ㉣두 번째 문제점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과거노력훼손 기준에 따르면 갓난아기의 죽음은 젊은이의 죽음보다 나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왜  $F_2 > F_3$ 인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비례 설명과 심리적 연결 설명은 모두 죽음 그 자체가 왜 나쁜 것인지를 중점으로 설명한다.
- ② 비례 설명은 죽음을 앞둔 30세 철수 사례에서 40세의 죽음이 30세의 죽음보다 더 나쁘다고 볼 것이다.
- ③ 단정 불가론은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요소를 개인동일성의 요건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여길 것이다.
- ④ 과거 노력 설명은 오랜 세월을 보낼수록 계획을 세운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젊은이의 죽음이 노인의 죽음보다 나쁘다고 해석할 것이다.
- ⑤ 아기의 죽음이 노인의 죽음보다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2. ㉠에 대해 할 수 있는 반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죽음을 두 사람의 죽음으로 치환할 수 없다.
- ② 죽음이 앓아가는 좋음의 양이 두 배가 되었다고 해서 나쁨의 정도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한 사람의 생애에서 미래에 일어날 좋음의 양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④ 하나의 생애에서 선택 가능한 두 유형의 죽음 중 덜 나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죽음이 왜 나쁜 것인가에 관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도, 어떤 죽음을 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시할 수 없다.

3. 윗글의 [문제]를 바탕으로 <보기>의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른 것은?

—<보 기>—

선생님: 아래의 두 설명 유형을 살펴보고 ㉠, ㉡, ㉢에 대해서 더하기 설명의 논증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파악해봅시다.

○ X: 비례 설명과 [가]의 장점을 종합한 더하기 설명  
 ○ Y: [나]과 과거 노력 설명의 장점을 종합한 더하기 설명

학 생: X에서는 ㉠가 발생하므로 [다]이 부정됩니다. 한편 ㉡를 고려한 Y에서도 여전히 ㉢를 해결하기는 어려운데 결국 과거 노력 훼손 기준의 참 또는 거짓 여부와 관계없이 [디]를 참이라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가	나	다	디
①	과거 노력 설명	과거노력훼손 기준	전제1	결론
②	과거 노력 설명	심리적 연결 설명	전제1	전제2
③	과거 노력 설명	심리적 연결 설명	전제2	전제2
④	심리적 연결 설명	비례 설명	전제2	전제1과 전제2
⑤	심리적 연결 설명	과거노력훼손 기준	결론	전제2와 결론